

담양 이주여성 '대나무박람회' 성공 힘보탠다

동아리 구성 공무원 외국어 교육 외국인 관광객에 지역 홍보 활동도

담양군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외국어 강연에 나섰다. 이들은 군청 직원들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외국어를 공부하고, 홍보 요원으로 나설 예정이다.

군은 3월 "오는 2015년 열리는 세계대나무박람회를 앞두고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이주여성과 공직자들이 함께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동아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운영되는 학습동아리에

는 다문화 이주여성 6명이 강사로 선발돼 팀을 이끌고 군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했다. 영어·중국어·일어 등 3개국 언어 6개 팀에는 53명의 공직자가 참여했다.

외국어별로는 영어 4개 팀 29명, 중국어 1개 팀 13명, 일어 1개 팀 11명이다. 이들 팀의 강사는 이주여성이 맡았다. 이 동아리는 매주 3시간씩 근무시간 이후 모여 실생활 위주의 외국어 회화를 공부하게 된다.

지난 25일에는 원어민 강사와 참여 공무원들은 상호 이해와 동아리 운영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강사로 나선 다문화 이주여성과 공무원들은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물론 담양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전희주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은 "외국어 학습동아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다문화 이주여성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공무원과의 유대를 통해 지역 정서를 쉽게 접하는 계기를 주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 역시 외국어 소통 능력을 키워 공직 내부의 국제화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친환경 인증면적 5000ha 확대 강진군 친환경연합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면적을 5000ha 이상으로 늘리고, 첨단농기술을 농가에 적극 보급하기로 했다. (강진군 제공)

영암 비정규직 처우 개선

6개월 이상 근무자 상여금·복지포인트

영암군이 기간제 근무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실시하고 임금과는 별도로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3일 군에 따르면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규직에게만 지급했던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6개월 이상 기간제 근무자에게도 올해부터 지급하고, 직무 분석과 개인별 근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체 사업 2년 이상 근무자 19명을 정규직



전통 표고 장 담그기 지난 28일 장흥군 대덕읍 평촌마을 아낙들이 옛 향이리에 표고버섯과 우리 콩이 어우러진 표고 장을 전통방식으로 담그고 있다. 이 마을의 장 담그기는 가정의 중요한 연중행사로 매주만들기·매주찌우기·장담그기·장뜨기 등의 행사가 초겨울부터 이듬해 초여름까지 계속된다. 장흥은 연간 2500t의 표고버섯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성, 민원 서비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장성군은 3일 "만족도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전문성 및 신속성, 민원봉사과 환경 및 편의 등 민원접수에서 처리과정까지 20달 동안 균형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주민 100명이다. 군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전문성 및 신속성, 민원봉사과 환경 및 편의 등 민원접수에서 처리과정까지 20달 동안 균형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장성=김용희기자 yongho@

화순, 학교 영어교육 8억 지원

화순군은 3일 "올해 대도시와의 영어교육 격차를 줄이고 원어민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관내 학교 영어교육에 8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어민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듣기 및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순교육지원청과 함께 4억6800만원을 투입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3명 채용에 배치하는 것은 물론 영어회화 심화교육을 위한 화순의국어체험센터 운영비도 지원한다.

정읍 연지시장, 26층 주상복합 재건축

남원 운봉지역 상수도보호 해지

남원시는 3일 "그동안 광역상수도 보급으로 인해 운봉정수장이 폐지됨에 따라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고시된 운봉지역 5.11km를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해지 고시했다"고 밝혔다.

운봉정수장은 지난 1984년부터 500t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해 운봉읍 일원에 공급했으나, 지난 2006년부터 이 지역이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받으면서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시는 운봉정수장으로 인해 반경 1km에 대해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고시되는 등 규제를 받았던 지역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와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다양화로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군산, 블루오션 개척지로"

김완주 지사 순회 방문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군산을 신기술과 성장동력산업이 공존하는 블루오션 개척지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14개 시·군 순회 방문 가운데 6번째로 군산을 방문, 융복합산업의 육성,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자금지원,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플라스마 기술연구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플라스마 기술을 전북도의 성장동력산업인 신재생에너지, 핵심부품 소재개발, 식품 생명산업 등과 연계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내년 착공 2017년 마무리... 구도심 활성화 기대

정읍 시내 전통시장인 연지시장이 주상복합건물로 재건축된다. 상가가 세워지면 옛 도심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28일 옥성건설, 제일중공업, 한국투자증권과 '연지시장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내용은 이들 업체와 함께 연지시장을 주거·문화·쇼핑공간을 갖춘 복합건물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

군산, 택시요금 15일 오른다

기본료 2800원, 적용거리 요금 148m당 100원

군산시는 3일 "전라북도의 '택시 운임·요금 조정'이 각 시군에 통보됨에 따라 택시요금을 15일 자정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2Km)은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적용 거리 요금도 150m당 100원에서 148m당 100원, 15km 이하 주행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도 36초에 100원에서 35초에 100원으로 각각 조정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연지시장과 인근 땅 등 모두 2만 10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1958년에 문을 연 연지시장은 정읍역과 가깝고 공용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좋지만, 전통시장 기능과 상권 침체로 인해 쇠락해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결정된 것으로 시내에서도 택시 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 인상 내역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도로전광표지판에 공고하고, 읍·면·동 자생조직과 택시업체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독립만세 함성 재연

지난 1일 오전 제94주년 3·1절을 맞아 정읍시 태인에서 독립만세 함성이 재연됐다. 전북지역 중고등학생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가지를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신

전주한지문화축제, 공예체험팀 등 모집

전주한지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3일 "전주한지문화축제 기간 동안 함께할 한지공예체험팀, 한지산업관 입주업체, 자원봉사자를 4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전주한지 물결, 한류와 함께 II'라는 주제로 오는 5월2일부터 5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원주

군 대소현지마을 등에서 펼쳐진다.

이번 공모를 통해 조직위는 한지공예체험팀 10팀, 한지산업관 입주 20개 업체, 자원봉사자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 접수

군산시는 3일 "오는 13일까지 올해 주택개량사업 추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는 모두 178동의 사업물량이 배정돼 74동을 1차 선정완료하고 추가로 104동을 2차 신청을 받아 농어촌 주택을 개량해준다.

신청 대상은 읍·면 전 지역 연면

적 150㎡ 이하 농어촌주택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주택은 제외됐다. 지원 비용은 신축의 경우 세대당 5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세대당 2500만원 이내이며, 5년 거주 15년 분할 상환 연리 3%로 농업을 통해 융자해준다. 연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서 9일 지리산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25번째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가 오는 9일 오전 남원시 산내면 운마에서 개최된다.

남원시 산내면 발전협의회 주관 하에 '지리산의 정기, 뱀사골 고로쇠와 함께 힘찬 출발!'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고로쇠 약수제는 '약수제 길놀이'행사 및 약수제, 기념식 등을 시작으로 천년승거복이 걸기대회,

지리산골 노래자랑, 고로쇠 이벤트 및 경품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축제를 찾는 외국인들은 실상사와 남원의 관광무원, 혼불문학관 등 인근의 문화재와 관광지를 둘러보고 맛의 고장 남원의 추어탕과 산채 비빔밥 등을 맛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정읍,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확대

정읍시가 올해 갑작스런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신속히 지원하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5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은 긴급복지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특별생계비 지원으로 이뤄진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주요 소득자의 소득 상실, 질병, 구급, 실직과 가정폭력, 화재, 단전 등 기존 지원 대상 외에 단수 가구, 도시가스 중단 가구, 건강보험료 체납자, 수급자 탈락가구, 가구원 간병 및 양육자, 채무부채 유여채분자까지 확대됐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